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추수감사주일: 오늘 14시 연합예배, 성찬식
- 집사 권사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명단 공고: 다음 주일
- 통역기 구입 완료: 이유하 교우가 통역 담당자로 수고하겠습니다.
- 토고 어린이를 위한 자선마라톤 후원: 10월 말까지 모아 전달합니다.
- 말씀일기 문집원고 2차 마감: 10월 15일까지
- 선교사들께 편지쓰기 협력(유초등부): 아이디어, 편지 혹은 물질후원
- 라합3 나라모임: 매주 목요일 9시 권순아 님 가정
- 지난 주 방문: 김용복-김선정/김훈
- 입원: 강관연(Evangelisches Krankenhaus Düsseldorf, 10월 2일 수술 예정)
- 한국방문: 김종권
- 결혼: 손민주-전하라(10월 6일)

◆ 말씀일기 일정

일/왕상11:14-25 월/왕상11:26-43 화/왕상12:1-11 수/왕상12:12-24
 목/왕상12:25-33 금/왕상13:1-10 토/왕상13:11-19 일/왕상13:20-34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12독 (송인선 2독)

◆ 예배위원 안내 ◆

	10월 1일	10월 8일	10월 15일	10월 22일
예배기도	김다니엘	석혜진	이정윤	백윤정
안내위원	예배부			
헌금위원	배진우, 유근임			
애찬위원	밥상 셋	밥상 넷	밥상 다섯	밥상 여섯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시편 98:1)



주일예배 12:00 Teestube 믿음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추 수 감사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1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105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588장	다 함 께
기도/Gebet		김다니엘 교우
말씀일기/Bibeltagebuch		이선영 집사
찬양/Chor	감사하리	찬 양 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골로새서 2:6-7	인 도 자
설교/Predigt	감사의 방향	손교훈 목사
성찬식/Abendmahl	집례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593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이선영 집사의 말씀일기 왕상10:1-13 '민감함의 날을 감사함으로 세우기' ◀

솔로몬이 점차 분별력을 잃어가는 와중에 스바 여왕의 휘황찬란한 찬사가 더해진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1) 솔로몬의 명성, 그의 지혜, 이스라엘의 번영. 잠언의 시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솔로몬 본인이 말했었다. 솔로몬은 알았었고, 잊지 말았어야 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불순종이 쌓이면서 서서히 사라져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아주 예민하고 민감했어야 했다. 그 많은 부와 명성이, 그리고 찬사들이 그에게서 감사를 잊게 했고 그의 성공이 그를 둔감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장은 잘 모르는 것이다. 하루 이를 게을리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그 성실함이 가장 어렵다. 하나님 앞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서있기 위해, 그날의 요동치는 감정 따위는 잠시 무시하고, 날마다 성실하게 그 앞에 서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지켜내야만 한다. 학업도 일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나도 독일어/영어공부, 업무기술공부 조금 게을리 했더니 최근에는 빈 깡통같은 기분이 자주 든다. 성경책도 매일 읽지 않았고,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일도 게을렀고, 책도 심지어 덜 읽는다. 정말로 성실하지 못했다. 아, 부지런해야 한다. 더 부지런해야 한다. 나의 게으름을 탄식한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쓰고 공부하고...정말로 24시간이 모자랄 일이다. 주 앞에서 예민하게 날을 세우고 나를 다듬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무너져내리는 것이 순식간이다.

추수감사절이다. 민감함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 중의 하나는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오지 않았음을,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 매일 반복적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각성시켜주는 것, 그것이 감사함이라고 여긴다. 감사하는 것에 성실하자, 나를 쳐서 민감하고 날카롭게 다듬는 것에 성실하자.